

보건관리			번호: J - A - 4		
제 목	국문	사망 전 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비용과 관련 요인			
	영문	A study on the cost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mong elderly in the last 6 month of lif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조항석 ¹⁾ , 오희철 ²⁾ , 이상욱 ³⁾ , 이지전 ⁴⁾ , 우은경 ¹⁾ 정혜영 ⁵⁾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건강보험연구센터 5)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문	Cho HangSuk ¹⁾ , Ohrr Heechoul ²⁾ , Yi Sang-Wook ³⁾ , Yi JeeJeon ⁴⁾ , Woo EunKyung ¹⁾ , Jung HyeYoung ⁵⁾ 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4)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5)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I. 연구배경 및 목적</p> <p>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포함한 여러 보완대체요법들을 이용하고 있다. 각종 보완대체요법의 의료비용수준은 병 의원 등을 이용한 정규의료이용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다고 추정되며,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에서 이용량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인구는 사망직전에 다양한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현재도 일반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양상을 살펴본 연구도 많지 않으며, 특히 노인의 사망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수준을 비용 중심으로 조사하고 보완대체요법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사망 전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기술 파악하며, 둘째, 사망 전 노인의 특성 및 주부양자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비용 수준을 비교분석하며, 셋째, 사망 전 노인의 보완대체요법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p> <p>II. 연구방법</p> <p>1) 연구대상</p> <p>이 연구는 2001년 하반기동안 사망한 후 건강보험에서 장제비를 지급 받은 지역가입자 중 주소가 서울지역인 대상자 5689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으면서 지역보험 상실원인이</p>					

"사망"이며, 상실일자가 2001년 하반기의 6개월 중 속하는 대상자 4210명을 추출하였다. 이 4210명을 성별 연령별(출생년별)로 배열하였고 연령이 같은 경우 무작위로 배열하여 총 301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2) 조사방법

연구자가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조사기관에서 직접 면접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항목은 연구대상자의 사망시 연령, 성별, 사망원인질환, 보완대체요법에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전화로 하루평균 1시간 이상씩 사망자를 간병하고, 사망자의 사망 전 6개월 간의 의료이용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가족임을 확인하고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방문시간을 정하여 조사하였다.

3) 조사 변수

종속변수는 사망 전 6개월 동안 보완대체요법에 사용된 비용이며, 독립변수로는 사망 전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보완대체요법 이용수준 변수들이다. 또한, 사망 전 노인의 주부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은 크게 심신조정요법, 한의학관련요법, 한방민간요법, 식이·영양요법, 수기신체치료요법, 약물요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이용항목수와 이용비용 그리고 각 영역별 만족도와 부작용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는 SAS의 PC용 윈도우즈 버전 8.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사망 전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기술 파악하며,

둘째, 사망 전 노인의 특성 및 주부양자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비용 수준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사망 전 노인의 보완대체요법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사망 전 6개월 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망자는 전체 대상자의 83.1%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 이용하였다. 사망전 6개월 동안 보완대체요법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대상자가 23.1%였으며, 50만원 미만이 21.6%,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33.4%, 그리고 23.7%는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썼다. 사망전 재산이 많을수록, 사망원인이 뇌졸중, 노인성질환을 제외한 기타질환에 비하여 암으로 사망할수록, 보완대체요법의 부작용 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정규의료만 이용한 군에 비하여 보완대체요법만을 이용한 군일수록 사망전 보완대체요법에 비용을 많이 썼다.

IV. 고찰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사망자에서 사망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비용과 보완대체요법 이용수준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이용률과 이용횟수, 만족도와 부작용 수준 등 실태 조사의 성격이 강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의 비용과 이용수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어, 그 이용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이용행태 및 비용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그 수준에 걸맞게 평가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생애주기 중 의료이용수준이 가장 높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특히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의료이용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으로 밝혀진 사망 전 특정 기간의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수준과 관련요인을 살펴 본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